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거리 곳곳에 비치된 서울홍보물. /서울시

英 에든버러 페스티벌서 서울 알린다

서울시, '관광·축제도시' 주제 현지에 홍보물 설치·책자 배포

이달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축제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에서 서울시가 '서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71주년을 맞은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매년 여름 열리는 축제다. 지난해 전 세계 48개국의 3398개의 팀이 300여개 공연장에서 총 5만3232회 공연을 선보인바 있다.

서울시는 '관광과 축제의 도시 서울'을 주제로, 에든버러 시내 곳곳에 홍보물로 도배된 '페스티벌 타워', 길거리 난간에 '와이드 스크린', '레일링 보드' 등 총 25개를 설치하고 서울브랜드 'I·SEOUL·U' 로고를 노출시켰다. 또 축제기간 동안 배포되는 홍보책자 120만 부에도 로고를 새겼다.

이달 이 축제에서 한 달 간 배포되는 일부 홍보물엔 서울의 4계절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봄꽃축제 ▲한강몽땅 여름축제 ▲가을 빛초롱축제 ▲겨울 김장문화제도 소개하고 있다. 시는 한국공연을

관람하러 온 해외 관광객들에게 '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르클레지오'가 서울을 배경으로 쓴 소설 '빛나'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 책은 지난해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글과 영어판(Bitna: Under the Sky of Seoul)로 출간됐다. 이어 프랑스어판은 프랑스의 중견 출판사인 에디션 오프 스톡(Editions Stock)을 통해 올해 3월 나왔다.

한편 이번 축제엔 한국의 우수한 문화 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글로벌 문화기업 코리아시즌의 주관으로 국내 4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퓨전 국악탱고 '스위트 탱고' ▲실현적 이미지극 '레이디 구미호에 관하여' ▲연극 '흑백다방' ▲가극극 '리틀 뮤지션'이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구미주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 되고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 후 한국방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해 지난 6월엔 전년 동월대비 관광객 수가 6.2% 증가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허물벗는 매미 7일 새벽 강원 춘천시 삼천동의 야산에서 매미의 유충이 땅속에서 나와 허물을 벗으며 우화(羽化)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진희선 임명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진희선(54·사진) 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이 7일 임명됐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제23회(1987년) 기술고시 출신으로 도시관리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생활권 특성을 살린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서울시 도시재생사



로 서울시의 임용제정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오진희 기자

업을 총괄해 온 재생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정에 따라 대통령 재

종로·중구 총 15개동 16.7km² 차로 줄이고 보행로 넓힌다

녹색교통공간 종합대책

서울시, 2030년까지 대책 추진 작년비 승용차교통량 30% 감축 내년부터 공해차량 진입도 제한

내년부터 서울 도심 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 등에 차로가 축소되고 보행공간은 확대된다. 공해차량의 도심 진입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6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15일 시는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한양도성 내부 16.7km²'를 지정해 요청하고, 승인받은바 있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을 2017년 대비 30% 감축하고,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녹색

교통 이용공간을 2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한양도성 내 차도는 최대 4개 차로로,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최대 6개 차로로 재편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진입수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보행·자전거를 위한 공간을 확대한다. 특히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사업)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연차별로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4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내년부터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을 제한한다.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

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당지역 진출입 도로(41개 지점)에서 번호판 인식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한다. 또한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연차별로 상향 조절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 제한속도도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km/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흥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서울 한양도성이 녹색교통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사람이 우선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교통 물결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쪽방촌 주민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서울시-KT그룹 '돌다릿골 빨래터' 세탁기·건조기·진공압축기 마련 자원봉사자 연계 수거·배달 서비스

1~2평 남짓 좁디좁은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을 누구보다 힘겹게 나고 있는 이들도. 서울시와 KT그룹이 1061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주민들의 빨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바로 '돌다릿골 빨래터'다.

서울시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건물 1층에 20m² 규모의 빨래공간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돌다릿골'은 동자동, 후암동 일대를 부르던 옛 우리말 지명이다. 이 빨래터에는 세탁기(30kg 1대), 건조기(30kg 1대), 진공압축기(1대) 등이 갖춰져 있다.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빨래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나머지 4개 쪽방촌 지역(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에도 빨래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돌다릿골 빨래터에 비치된 세탁기. /서울시

이 빨래터에서는 쪽방 주민들의 의류·침구류를 세탁·건조 후 진공으로 압축 포장해서 돌려주는 토털 세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집으로 찾아가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해준다.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진공포장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8명의 직원은 모두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다.

이번 쪽방촌 빨래터 개소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와 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그리고 2014년부터 '동자동희망나눔센터'를

설치하고 쪽방촌 지원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KT그룹의 민관협업이 있었다. 올초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제안한 초기 계획서를 가지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시는 올 한 해 건물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2458만 원)를 지원하고(㈜KT는 세탁기·건조기 등 세탁장비 구입비와 건물 리모델링 비용(3200만 원)을 후원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운영하는 은누리복지재단에서는 전기 관련 공사비 680만 원과 전담 관리인력 1명을 지원한다.

/오진희 기자

'폭염'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일당 보장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폭염경보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일일 임금은 온전히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폭염주의보 시에도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당 10~15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구·투출기관 발주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중지, 일일 임금 지급 등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될 시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

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현재 서울시 924곳 공공공사현장에는 6000여명의 옥외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

서울시, 경보때 오후작업 중단 휴게공간·냉방용품 등도 마련

를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현장근로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휴게시간, 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